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남부교무구
안양권역 연합성찬례



전례담당자		성체배령 담당자
집 전 : 변승철 신부	십자가 : 유태하 교우	1조 변승철 신부 / 유태하(안양)
설 교 : 조준행 신부	유 향 : 유광우 교우	2조 김문영 신부 / 정연창(산본)
성가대 : 연합성가대	봉 헌 : 연합 어머니회	3조 노형호 신부 / 백규열(인산)
지 휘 : 박태영 교우		
반 주 : 함희정 교우		

1독서, 창세 1:1-2:4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2 팔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물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풀이 돋아나라! 땅 위에 낱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풀이 돋아났다, 낱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 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한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별들과 어둠을 갈라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흘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니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미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다섯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짐승들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길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거라!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짐승들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거라!"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낱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셋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는 엿셋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이엿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엿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관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2독서, 2고린 13:11-13

11 형제 여러분, 그러면 인내히 계십시오. 온건하게 도기를 힘써 내 권고를 귀담아들으십시오. 그리고 뜻을 같이하여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주실 것입니다. 12 거룩한 임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권고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마태 28:16-20

16 몇몇 제자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뵈고 영드려 즐거웠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감사성찬례

1월식 1말식

[개 회 예 식]

# 입당성가	_____	♪323장
# 개회기도	_____	집전자
# 기원송가	영광송(O)	♪81장
# 본기도	_____	집전자

[말 씀 의 전 레]

제1독서	창세 1:1-2:4	김화숙
시 편	시편 8	다함께
제2독서	2고린 13:11-13	박민숙
# 출제성가	_____	♪347장
# 복 음	마태 28:16-20	노형호 신부
설 교	_____	조준형 신부
나케야신경	_____	양송
대 도	_____	이은가

[성 관 의 전 레]

# 평화의 인사	_____	다함께
# 봉헌성가	_____	♪403장
성찬기도	1말식	집전자
거룩하시다	C곡	♪82장
주의 기도	_____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C곡	♪83장
영 성 체	_____	♪605장
# 영성체 후 기도	_____	다함께

[파 송 예 식]

광 고	_____	한민호
# 축복기도	_____	집전자
# 파송성가	_____	♪342장

본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교회는 해마다 성유월제의 영광과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신명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비오니, 우리가 이 신비를 굳게 믿어 간증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



1. 하느님, 우리의 |주-|여!
○ 주님의 이름, 온 세상에 어찌 미리 |크심나-|까?
 2. 주님의 영광 기리는 노래, 하늘 높이 퍼칩니다.
○ 어린이 걸터들도 |노래|합니다.
 3. 이르러 원수들과 반역자들을 |꺾으|시고
○ 당신께 맞서는 자들을 무색케 |하셨|습니다.
 4.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거 |하늘|과
○ 달아 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 보이면
 5.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피 |주시|나-|까?
 6. 그를 하느님 다음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1부 찬양 : 11시 ~ 11시 30분 / 감사성찬례 : 11시30분 ~ 1시

2부 사랑의 애찬 : 1시 ~ 2시

3부 친교 행사(소그룹 활동) : 2시 ~ 3시 (경품 추첨)

- 오늘 연합 감사성찬례의 집전과 설교를 해 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해 주신 박경조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오늘 남부교무구 안양권역의 세 교회(안양, 안산, 산본)연합모임이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양권역의 선교와 연합을 위한 교류로 이어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 감사성찬례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연합성가대와 찬양팀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연합 모임을 준비해 주신 각 교회 회장단과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3부 친교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조영란, 지성학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찬양 인도를 해 주신 백규열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감사성찬례 봉헌금은 '안산교회'를 위해 사용되며, '군포늘푸른복지관' 에는 행사 비용 중 100만원을 후원합니다.
- 점심식사는 소규모 출장 뷔페로 진행하며, 식사장소는 1층 식당과 야외 식당입니다. 출장 뷔페를 준비해 주신 오신근님께 감사드립니다.
- 커피와 슬러시를 후원해주신곽정근, 이해정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 봉헌 정리는 각 교회 재무위원들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 오후 3시부터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경품을 후원해 주신 안산, 산본, 안양교회의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며 늘 푸른 복지관에서도 기념품 30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